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363
----------	------

제안년월일 : 2020년 3월 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주 문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우려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장에게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대책의 실시를 촉구함.

2. 제안이유

-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대면 접촉을 피하는 경제활동의 증가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은 매출 급감 등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지방세 지원 등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임대료 경감과 납부 유예를 실시하고, 민간 건물주에게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하려는 것임.

3. 이송처 : 서울특별시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

-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의료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매출이 극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금년 1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우려가 가중되면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소비 형태가 확대됨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은 정상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중국을 통한 원자재와 부품 수급의 차질, 매출 둔화 등에 따른 사업장 운영 중단으로 지역경제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 이에 따라 위축된 내수시장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지방세 지원 등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임대료 부분은 빠져

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에 직접 타격을 입고 있는 상인들을 돕고자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선의의 상생 운동이 지역 내 민간 건물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 대책의 실시를 촉구한다.

첫째,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경감하고 납부 유예를 실시한다.

둘째, 서울특별시장은 민간영역에서도 상생 발전과 고통 분담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2020년 3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